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수륙대재 연다

6월 6~7일, 해인사 일원서 문화행사 등 계획

국군 · 유엔군 등 국가 차별 없이
5가지 희생자들 위한 영단 설치
각국 · 시민사회계 대표인사 초청
"전쟁 참상 알리고 평화 기원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수륙대재를 여는 해인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사진 가운데)이 행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해인사 홍보국장 효범 스님, 사진 오른쪽은 총무국장 진각 스님.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대재를 거행한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6~7일 해인사 일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계획을 발표했다.

현응 스님에 따르면 해인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전쟁으로 사망한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민간인 등 다섯 가지 유형의 희생자들을 하나의 영단에 안치해 천도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70년을 이어오는 동족상잔의 아픔과 원한을 씻어내고, 해원 상생을 이뤄 남북겨레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먼저 6월 6일에는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추모음악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쟁 참상과 평화 희구에 대한 사진전'과 설치예술, 한국전쟁 상징을 도안으로 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7시에는 특설무대에서 △진도씻김굿 △전쟁과 평화 주제 창작 단막 뮤지컬 △위령시 낭송 △초청가수 공연 △어린이합창단 무대 등이 이어진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올해 윤4월 보름이 양력 6월 6일이다. 손 없는 달인 윤달에 국가적으로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이 겹쳐 그 의미가 보다 크다"며 "전쟁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음악회와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행사인 수륙재는 7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전통의식과 병행해 의장대, 취타대, 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 위령음악을 연주하며 사회 각계의 평화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초청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전쟁희생자 각국 대표들의 방한도 기대를 모은다. 해인사는 수륙재를 위해 다섯 가지 희생자들 영령을 오각형 모양의 '오로단(五路壇)'에 안치하고, 추모등을 해인사 일원과 진입로에 설치한다.

현응 스님은 "3월부터 해인사를 방문하는 많은 참배객들에게 소원지를 받아 행사장 소원나무에 걸었다가, 행사 당일 화로대에 사르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려 한다"면서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 백등을 권유, 국가차원에서 한국전쟁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인사 수륙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 · 삼화사 국행수륙재와는 달리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위령천도의식을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진행해 수륙재 참가 대중에게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응 스님은 "계율을 설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공덕을 쌓는 법이다. 모든 불교의 가치는 알아듣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인사는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사명대사께서 수년간 계셨고,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였던 용성 스님이 수행한 사찰인 만큼 국가와 사회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공식 통계에 따르면 희생자는 총 137만419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군 13만7899명, 경찰 3131명, 남측민간인 24만4663명, 북측민간인 28만2000명, 유엔군 3만7902명,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14만8600명이다.

조계사, 코로나 피해상권 '상생 도모'

기자회견서 올해 계획 발표
국화축제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서점과 템플스테이 연계
소외계층 위한 천도재 봉행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올해 '이웃과 함께 하는 조계사'란 주제로 지역상생 도량으로 거듭난다.

조계사(주지 지현 · 사진)는 2월 12일 관음전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 지속 추진 △포교와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도조직 강화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법 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법활동 강화다. 지난해 12월 30일 조계사 봉사단인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본격 나선다. 그동안 집수리와 반찬나눔, 의료봉사, 독거어르신 돌봄 등 대사회 자원봉사에서 정부 사회복지사업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행복나눔가피봉사단 역량을 강화하는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대회'와 종로구 관내 무연고 어르신을 위한 '무연고 어르신 천도재' 등도 진행된다.

또한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속에 지역민을 위한 사찰의 상생도 추진된다. 조계사는 기존 템플스테이를 경복궁 책방길 동네서점 등과 제휴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이로써 경복궁 인근 서점 탐방과 조계사 찻집 가피, 조계사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사동 상인회와 협의, 매년 10월 대규모로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 기간 인사동을 국화로 장엄해 국화축제 확대를 통한 상권 돕기에도 나선다.

인근 직장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점심(點心)' 도 개발, 기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점심'은 최근 늘고 있는 채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조계사 만발식당 등을 활용, 인근 직장인에게 채식단을 제공하고 짧은 점심시간 요가와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학교 법회를 어린이법회와 중 · 고등학생회 법회로 구분하고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발급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의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조계사 어린이집을 4월 9일 정식 개원해 운영한다. 또 조계사 종각 보수사업 등 도량정비도 진행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의지처가 되는 사찰이 되고자 한다. 사찰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라며 "한국불교 총본산이라는 위상에 맞게 불교의 미래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도박 등 파승가 행위 엄벌"

고운사 · 법주사 등 교구본사 의혹에 담화문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성추행 의혹과 제5교구본사 법주사 스님들의 도박 의혹이 불거지며 조계종단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종단 행정수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태 해결을 위해 종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행 스님은 2월 11일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담화문 발표는 총무원 대변인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이 맡았으며,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호법부장 성효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이 배석했다.

원행 스님은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대중의 지탄에 먼저 참회의 뜻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의 보고임을 자부해온 사찰에서 파승가적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탐욕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상실감을 대신할 수 없다. 참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종정예하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승가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담화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업부장 주혜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호법부장 성효 스님.

이와 관련해 현재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각 사안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 17일 소집되는 중앙징계위 회의서 도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법주사 말사 주지들에 대한 직무정지가 예상된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호법부에서 도박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종단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중앙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러 정황을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호법부장 성효 스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조사가 미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장담은 어렵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송광사 자공 · 관음사 허운 스님 주지 임명

금정총림 범어사 珙주지 경선 스님 재추대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에 자공 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에 허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두 스님에게 각각 교구본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는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라며 "종단과 교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일각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및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원각사 · 만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 서봉사 주지, 신도시포교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자공 스님


허운 스님

한편 금정총림 범어사는 12일 임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 추천에 따라 차기 주지후보로 현 주지 경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

2020년도 1·2학기 강·좌·안·내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는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 교육기관입니다. 2020년도 1, 2학기 탄허강숙 강좌는 선불교의 고전인 《육조단경》과 '선시(禪詩) 300수'를 강의합니다. 3월 첫주부터 시작되며,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배움, 탐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 2020년 1~2학기 탄허강숙 강의 과목과 일정

과 목	강 사	비 고	요 일
1학기 : 육조단경(六祖壇經) 2학기 : 임제록	정성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3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1-2학기 : 선시 300수(禪詩三百首) 선시해석과 감상	석지현	선시감상사전, 벽암록, 종용록 완역자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 장 소 :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7층 711호.

지하철역 안내
- ❶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직진 20m 인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0m. 오른쪽에 하나로 빌딩이 보임. 도보로 5분 소요
- ❸, ❺호선 종로 3가역 5번 출구. 인사동 쪽으로 직진 인사동 4거리에서 왼쪽편에 하나로빌딩이 보임. 도보 10분 소요.
- ❸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직진. 인사동 방면으로 내려오다가 인사동 4거리부근. 오른쪽에 하나로빌딩이 보임. 도보 10분 소요.
- ❺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종로구청, 인사동 방면. 도보 약 12분 소요.

◆ 개강일시 : 2020년 3월 2일 ~ 6월 30일 매주 월요일 육조단경. 화요일 선시 300수
◆ 접수기간 : 2020년 2월부터 개강 직전까지
◆ 접 수 :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
◆ 전화접수 : 02-732-2403~4. 010-3731-1586, 010-5226-2149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5만원(일시불).
*전 2과목 수강시 40만원(10만원 할인 /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을 동일하게 표시하고,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당일 배포.

강의실 변경 안내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7층 711호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

